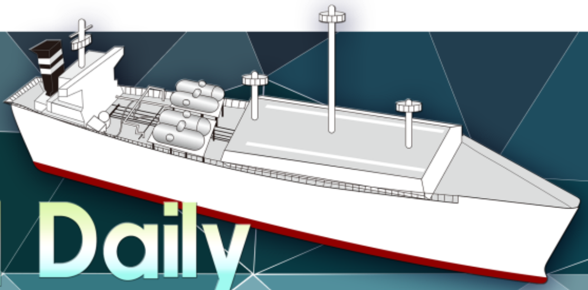
meritz 조선/기계 Daily



2021. 10. 14 (목)

meritz 메리츠증권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이집트서 1조8000억원 조선소 MOU

삼성중공업이 이집트 1.8조원규모 수에즈 운하 인근 조선소 건설사업을 계약함.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이집트 대통령과 수에즈운하청장을 연달아 만나 조선 사업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됨. (뉴시스)

Deadline to declare on 17 berths for Mozambique LNG pushed to 2022

30억달러규모 Mozambique 프로젝트 LNG운반선 발주가 2022년 3월로 연기됨. 현대삼호중공업에 9개, 삼성중공업에 8개의 dock slot을 확보해둔 상황이었음. 프로젝트 지분 26.5%를 보유하고 있는 Total Energies는 싱가포르 주재 추진팀 중 극소수만 남기고 철수시킴. (Tradewinds)

Capesize bulker spot rates fall into correction territory

몇주간 상승하던 Capesize bulker Spot운임이 조정받음. Capesize 5TC는 수요일(13일) 74,540달러/일로 지난주 금요일(8일)대비 -11.1% 하락함. (Tradewinds)

Capesize bulker rates may drop to 'higher low' amid falling demand

지난 9월 폭등했던 Capesize bulker 운임이 2008월 6월 234,000달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환경 규제로 선박 공급이 적고, 원자재 수요는 운임을 더 올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신조선 발주량 5年 사이 3.6배 증가

클락슨에 따르면 1~9월 전세계 선박 발주는 3,754만CGT로 전년동기대비 +184%, 2016년대비 +257% 증가함. 9월 선박발주는 한국이 91만CGT, 28%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글로벌 2위 수준임. (선박뉴스)

"삼성도 근무 시간 늘린다" 바이든, 물류 적체 민간 도움 호소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물류망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협조를 요청함. 로스 앤젤레스와 롱비치항의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발표하며 "민간부분이 나서지 않는다면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시아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